

합스부르크 왕궁과 그 앞을 지나는
관광 마차 휘아커(Fiaker).
옆 페이지 ▶ 도나우카날 인근의 작은
공원을 산책하는 노부부. 토지의 50%가
녹지인 빈에는 공원과 정원이 280여 개에
이르며, 지금도 매해 늘고 있다.



Recollection of Wien

빈의 기억법

과거를 온전히 품고도 이토록 현대적일 수 있다는 것. 지난 시간을 곱씹어
독창적 미래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견하는 도시의 명민한 기억법.

글 · 사진 오성윤(@yoonieoh)

도시의 박물관 혹은 뿌리, 링슈트라세

비엔나를 여행할 예정이라고 하면 오래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비엔나 커피 마셔보셨네요?” 그나마 소시지를 거론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도시 이름을 ‘빈’이라 고쳐 발음해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럼 클래식 공연 같은 것도 관람할 예정인가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비엔나커피’로 회자되는 아인슈페너 빈 고전파음악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일 터. 사실 이런 반응은 빈이 풍기는 오랜 스테레오타입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이미지, ‘지적이고 우아하고 고답적이고 낯은 도시’라는 선입견 말이다.

빈 최고의 변화가 케른트너 거리(Kärntner Straße)를 걸으며 그런 편견을 다시 한번 굽씹는다. 그야말로 눈 돌리는 곳마다 카페를 발견할 수 있으며, 600미터 남짓 걷는 동안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거리 예술가를 여러 명 맞닥뜨렸으니까. 고급 브랜드 상점과 쇼핑센터로 채워진 거리인데도 대부분의 건축물이 전통 양식이다. 개중 심심하게 생긴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은 것일 확률이 높다. 전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옛 유산을 최대한 복원하려 노력한 것이다. 수첩을 꺼내 이런 문장을 적는다. “세

간에 빈이 보수적이고 깐깐한 도시라는 선입견이 있다면, 거기에는 빈 자체의 탓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한 명의 거리 예술가를 지나치는 순간, 시선이 성 슈테판 대성당(Stephansdom)에 멈춘다. 완공된 지 800년이 넘는 초고대 유물이자 여전히 빈 시민의 정신적 대들보로 기능하는 성지. 시내 투어의 가이드를 맡은 오현주 씨는 대뜸 손을 뻗어 그 맞은편으로 주의를 돌린다. 근방에서 보기 힘든 현대적 건축물, 하스 하우스(Haas House)다. “처음 하스 하우스의 설계안이 나왔을 때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해요. 빈의 자랑인 성 슈테판 성당 옆에 포스트모던 건축물이 들어서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건축가는 고심 끝에 건물 전면에 거울 유리를 사용하기로 해요. ‘현대 건축물이지만 표면을 거울로 만들어 주변의 전통 건물들을 비추도록 하겠다.’ 시민들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죠.” 멈춰선 발걸음을 다시 옮기자 하스 하우스의 외벽에 반사된 파스텔 톤의 건물들도 따라 흐른다. 건물의 끝자락에 다다르니 성 슈테판 성당도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내 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그 그래요. ‘빈 사람들은 조상 잘 만나서 참 편하게 산다’고요. 하지만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빈의 저력은 과거를 잘 보존하고 새로운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인 시민들에게서 나온 거니까요.” 빈이 유독 전통을 숭상하는 도시인 건 맞지만, 그 숭상에는 입체적 측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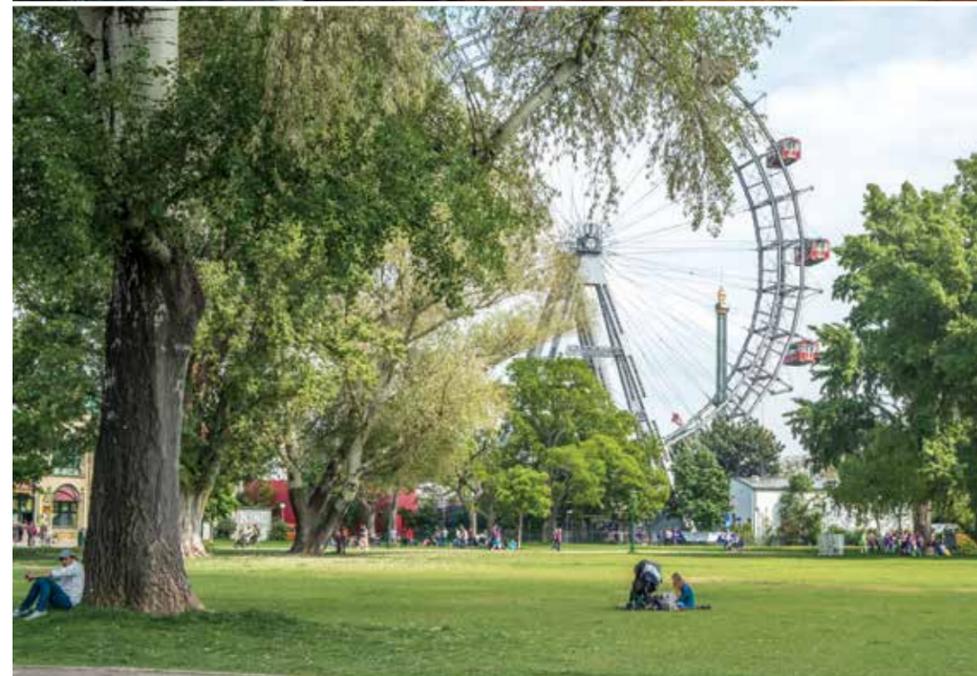
있다는 뜻이다.

케른트너 거리에서 출발한 도심 산책은 반지 양의 순환도로인 링슈트라세(Ringstraße)를 따라 이어진다. 이 도로의 본래 정체는 성벽. 빈의 범주가 오늘날처럼 넓어진 것은 도시 성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폭 57미터, 길이 4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설치한 이후의 일이다. 그렇기에 성 슈테판 대성당이나 합스부르크 왕궁처럼 역사가 오래된 건축물 대다수가 이 원 안에 웅기종기 모여 있다. 오페라하우스, 미술사 박물관, 의사당, 궁정극장, 시청, 빈 국립대학 등 19세기 이후의 공공시설도 대개 링슈트라세 도로변을 따라 들어섰다. “빈 관광이라고 하면 보통은 링슈트라세를 따라 합스부르크 왕궁이 남긴 400년의 유물을 훑어요. 패키지 여행에서는 이 주변만 돌아보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경우도 많죠.” 시민정원(Volksgarten)을 거닐며 오현주 가이드가 말한다. 요 며칠 비가 내린 후 기온이 내려가서인지 시민정원의 자람인 장미는 여태 등성등성하다. 인적도 드물다. 유모차를 끄는 가족들과 나른하게 하프를 뜯는 거리 연주자가 있을 뿐. 하지만 합스부르크 왕국의 앞마당 격인 헬덴광장(Heldenplatz)에 발을 들이자 가히 인파라고 할 만한 관광객 무리를 마주한다.

작년 한 해 빈을 방문한 관광객은 자그마치 750만 명. 평균 투숙 기간은 이를 정도에 그친다. 인접 도

“현대 건축물이지만 표면을 거울로 만들어 주변의 전통 건물들을 비추도록 하겠다.’ 시민들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죠.”

왼쪽부터 ▶ 콜마르크트(kohlmarkt) 거리에서 바라본 합스부르크 왕궁. 사진가 루이지 토스카노(Luigi Toscano)의 <‘The Faces’>.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얼굴을 담은 작품을 특수 소재에 인쇄해 5월 한 달간 링슈트라세 주요 건축물 앞에 전시했다.



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들르듯 여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합스부르크 왕궁이나 성 슈테판 성당, 친부른 궁전, 벨베데레 박물관 등 ‘박제된 곳’을 훑는 선에서 여행을 마치니, 빈이라는 도시에 유독 피상적인 이미지가 떠도는 것도 그리 놀랄 게 아니다. 빈을 취재하는 동안 만난 현지 사람 대부분이 이런 인식의 차이를 인지했다. 그들은 대부분 ‘빈의 오늘’을 다루겠다는 기획을 아주 흥미로워했다. 그럼에도 꼭 이런 종류의 사족을 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도 000(역사적 명소)는 꼭 가보세요.” 자기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극진한 애정이겠지만, 어쩌면 역사적 뿌리를 건너뛰고는 도무지 빈의 오늘을 알 방법이 없다는 힌트였을 수도 있다.

▶ 합스부르크 왕궁 hofburg-wien.at

훈데르트바서와 녹색 수도

오해할 수 있겠다. 빈이 현대 건축물을 무작정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축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를 낳은 도시니까. 오래 바르셀로나의 가우디에 비견되곤 하는 이 건축가 겸 예술가는 언제나 비정형성, 불규칙성, 자연과의 조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빈 곳곳에 기상천외한 작품을 남겼다. 그가 생전에 거거 하기도한 쿤스트 하우스 빈(Kunst Haus Wien)도 그 중 하나. 오늘날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그가 지향하는 공간 철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울퉁불퉁한 바닥은 흡사 들판이라고 걷는 듯한 감흥을 안겨 주고, 각각각색의 타일, 페자재, 빈병 등의 디테일이 섞여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게 한다. 나무가 건물을 비집고 자라도록 설계한 데다가 옥상은 아예 통째로 정원으로 만들었다. 꽃이 아무렇게나 피도록 두고, 잔디 한 번 다듬지 않았기에 ‘정원’ 같은 곱상한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옥상 정원에 벌통을 놓아보자고 한 건 겁담을 나누다 우연히 나온 이야기였어요. 사실 성공 여부는 저도 확실하지 못했는데, 금세 벌들이 날아들더군요. 훈데르트바서가 생전에 옥상 위에 소를 키우려다 구청장에게 퇴짜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의 정신을 이어받는 의미였죠.” 쿤스트 하우스 빈의 옥상에서 일하는 양봉업자 토마스 젤렌카(Thomas Zelenka)가 벌통에 연기를 뿌리며 말한다. 훈연을 맡은 벌은 이를 산볼로 오해해 꿀을 잔뜩 머금고 이사 준비를 한다. 자연히 행동도 굼뜨니,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안심하고 구경할 수 있게 된다. 벌의 비행 소리가 잦아들자 젤렌카가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판 하나를 꺼내 든다. 뽕뽕이 들어찬 꿀벌이 쉼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벌통은 기껏해야 책상 서랍만 한 크기의 박스 예닐곱 개뿐이지만, 여기서 꿀을 만드는 벌만 900만 마리가 넘는다. “물론 생산량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꿀의 품질

위부터 ▶ 쿤스트 하우스 빈의 옥상 정원에서 양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토마스 젤렌카. 도심 공원 프라타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과 빈의 명물인 관람차 비너 리젠라트(Wiener Riesenrad).



마룻바닥이 삐그덕대는 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질 때,
그리고 문 닫는 소리와 함께 멈출 때,
벽면의 작품들은 또 한번 다르게 다가온다.

조란 무시치의 개인전을
열고 있는 갤러리
W&K 팔레스의 실내 전경.

이 다른 자연산 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상징성이 있죠. 훈데르트바서의 철학과 도시에 사는 벌의 의미를 아는 이들은 꿀을 구매합니다. 기꺼이 더 비싼 가격을 치르고 말이죠.”

훈데르트바서가 주창한 철학의 영향인지 특유의 기질인지, 빈은 여전히 토지의 절반을 녹지로 가꾼다. 국민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인데도 말이다. 28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 중에서도 녹지에 대한 빈의 철학이 잘 묻어나는 곳으로는 늘 프라터(Prater)가 꼽힌다. 옛 합스부르크 왕가의 사냥터에 들어선 6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원은 4.5킬로미터 길이의 일직선 산책로 하웁탈레(Hauptallee),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 부르스텔프라터(Wurstelprater)를 비롯해 무수한 숲길, 공터, 연못을 품고 있다. 각종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알테 도나우(Alte Donau),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된 인공 강변 뉴 도나우(Neue Donau),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나우카날(Donaukanal)까지 도나우강의 각 구역도 빈 시민에게 휴식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하기 좋은 장소다.

1 **쿤스트 하우스 빈** 입장료 12유로, kunsthauswien.com

2 **프라터** 관람차 비너 리젠라트 탑승권 12유로, praterwien.com

유적지를 변주하는 법

예술은 빈을 대표하는 키워드. 역사를 대하는 이 도시의 유연한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도 예술이다. 일례로, 성 슈테판 성당에 들어서며 맞닥뜨린 것은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돌덩이들이다. 사순절을 맞아 현대 예술가 피터 발딩거(Peter Baldinger)가 성당 천장에 1,332개의 돌덩이를 매단 것이다. 800년 역사의 대성당에서 설치미술 프로젝트를 선보일 정도니, 성당에서 벌이는 음악 공연은 꽤 일반적인 축이다.

성모마리아의 모친인 안나를 기리는 성 안나 성당(Annakirche)도 정기 공연을 여는 성당 중 하나다. 방문한 날 예정된 공연은 현악사중주. 빈 음악 대학과 음악원의 수료생으로 구성된 애온 쿼텟(Aeon Quartet)이 빈의 위대한 유산,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500년 역사의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쉬워하는데, 그것도 잠시, 조율을 마친 4대의 현악기가 연주를 시작하자 삼시간에 공기가 달라진다. 관객이 두런거리던 때와는 아예 다른 장소가 된 듯하다. 연주곡은 모차르트 현악사중주 14번 G장조 ‘봄’. 첫 악장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지자 바이올리니스트 아마릴로 라말호(Amarillo Ramalho)가 악기를 조용하다 말고 설명을 시작한다. “오늘 저희가 연주하는 악기는 17세기에 만든 것입니다. 모차르트보다 먼저 태어났죠. 연주에서 여러분이 평소와 다른 감흥을 얻는다면 그 덕분이겠고, 저희가 악장마다 악기를 다시 조용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몇 세기 전에 만든 악기의 소리는 누구나 느낄 만큼 확연한 차이가 난다. 기분 탓이 아니다. 비교적 높은 톤의 예민한 음을 내며, 소리에 실리는 나무 소재의 물성도 한층 짙다. 현대에 생산한 악기보다 더 나은지는 모르겠으나 의미 있는 시도다.



오페라 하우스 백스테이지 투어

오페라 하우스는 우직하게 19세기의 운영 방식을 따르며, 백스테이지 투어(9유로, wiener-staatsoper.at)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악가들이 목을 푸는 대기실, 각종 악기의 조율 소리가 울리는 오케스트라석, 댄서들의 발소리로 가득한 발레 연습실... 비엔나 관광청의 소개글은 이 소리들이 만드는 총체적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다. “귀를 기울여보면 오페라하우스 건을 자체가 거대한 콘서트홀이 된다.”

위부터 ▶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비롯해 정기적으로 클래식 음악 연주회를 여는 성 안나 성당. 빈 오페라하우스의 외관.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소리의 악기를 연주하던 시대에 곡을 만들었을 테니까.

갤러리 W&K 팔레스를 방문한 본래 목적도 작품보다 공간을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저희 갤러리에는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쉴레, 오스카어 코코슈카 같은 빈이 낳은 유명 작가의 작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품은 모두 W&K 갤러리 본원에서 전시해요. W&K 팔레스에서는 전후 미술부터 동시대 미술에 이르는 작품을 다루죠.” 현대적 전시 공간에서는 빈의 고전 회화 작품을, 바로크 양식의 고택에서는 현대 작품을 선보인다는 뜻. 큐레이터 아이린 매크백(Irene Makovec)이 슬로베니아인 화가 조란 무시치(Zoran Mušič)의 작품 사이를 가로지르며 말한다. 독일 다하우 수용소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를 다룬 작품은 고풍스럽고도 화려한 인테리어 속에서 좀 다른 맥락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좀 다른 아우라까지도.

이 공간의 정체인 팔레스 쇤보른-바티야아니(Palais Schönborn-Batthyány)는 1706년에 지은 저택이다. 체코 프라하의 쇤보른 가문이 빈의 별장격으로 사용하던 집인데, 한때 실내를 채운 예술품과 가구만 1만8,000여 점에 달했다고 한다. 비록 당시 예술품은 세월과 전쟁을 거치면서 모두 사라졌지만, 공간과 그에 깃든 역사가 W&K 갤러리의 두 운영자에게 영감을 안겨주었다. 매크백은 자유롭게 창문을 열어 도 좋다는 말을 남기고 혼자 천천히 감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다. 300년이 넘는 마룻바닥은 그녀가



1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카페 슬루카의 실내. 오른쪽에 슬루카의 아인슈페너와 살구 잼을 얹은 자허트르테.



아인슈페너
 ‘비엔나 커피’라는 표현에는 어폐가 있다. 빈 토박이는 아인슈페너를 잘 마시지 않으니까. 크림과 설탕을 잔뜩 얹은 이 커피는 마부들에 의해 태어난 음료다. 2개 층으로 이루어진 특유의 구조는 말고빼를 편 채 한 손으로 탁 털어 넣을 수 있도록, 듬뿍 얹은 생크림은 커피의 온기를 유지하고 지방질로 추위를 이겨내도록 도왔다고 한다.

“지금도 빈 시민은 대부분 자기만의 단골 카페를 갖고 있어요. 이곳저곳 가본다는 식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죠.”

문으로 내딛는 걸음마다 탁한 소리를 낸다. 빼고덕대는 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질 때, 그리고 문 닫는 소리와 함께 멈출 때, 조란 무시치의 그림은 또 한번 다르게 다가온다.

- 1 성 안나 성당 annakirche.at
- 2 W&K 팔레스 w-k.art

카페, 비엔나의 영원한 안식처

빈 예술의 정수를 보려면 웅당 친부른 궁전이나 벨베데레 궁전부터 둘러야 한다. 결정장애가 있는 이에겐 둘 중 어느 곳을 갈 것인지가 빈 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일 터. 물론 두 곳 모두 간단히 간단히 해결된다. 또 하나의 난제, 카페는 그렇지 못하다. 시내의 유서 깊은 카페만 1,200곳이 넘으니까.

카페 센트랄(Café Central), 데멜(Demel), 카페 자허(Café Sacher) 등 관광객 사이에서 ‘3대 카페’로 회자되는 곳이 있지만, 오현주 가이드는 그런 곳에서 카페 하우스를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오른 빈 카페 하우스 문화(Wiener Kaffeehauskultur)는 커피 맛이나 인테리어 이상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카페 하우스는 오늘날의 카페와는 개념이 살짝 달랐어요. 집이 좁은 평민 계층이 응접실처럼

사용하던 곳이었고. 하루 종일 머무르기도 하고, 아예 집처럼 여겨 우편물 주소에 카페 주소를 쓰기도 하고요. 지금도 빈 시민은 대부분 자기만의 단골 카페를 갖고 있어요. 이곳저곳 가본다는 식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죠.”

인파를 피해 결국 들어선 곳은 오현주 가이드의 단골 카페인 슬루카(Sluka)다. 그녀의 이야기가 빈 예술가들의 단골 카페로까지 흘러갔을 때, 웨이터가 테이블 위에 모카와 아인슈페너 1잔씩을 내려놓는다. 130년의 역사를 지닌 이 카페는 커피보다 페이스트리 메뉴가 백미. 케이크 몇 조각을 주문하려 진열대로 이동하는 틈에 카페의 분위기를 관망해본다. 주말의 변화가인 만큼 모든 테이블에 손님이 들어차 있지만, 보타이를 바짝 올려 맨 웨이터들은 도통 허둥지둥하는 기색이 없다. 대부분의 테이블을 커피 1잔과 페이스트리 하나를 놓고 한껏 늘어선 손님이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을 보내는’ 손님이 말이다.

카페 폴펜지온(Vollpension)이 쫓는 빈의 유산은 종류가 조금 다르다. 한적한 주택가 지역에 위치한 이 카페는 2015년, 몇몇 젊은이가 주도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지역 거주 노인들이 직접 구운 케이크를 팔고, 전문 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이 거기에 맞는 커피나 음료를 곁들인다. 카페로 들어서며 처음 맛닥뜨린 이도 웨이터 업무를 보는 노년의 남성이

었다. “폴펜지온 직원은 전부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어울려 일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이런 케이크는 정말 할머니만 구울 수 있거든요.” 한나 룩스(Hannah Lux) 대표의 설명이다. 노련한 기술에 젊은 감각을 접목한다는 콘셉트는 말쑥한 듯하면서도 목가적인 인테리어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하얀 페인트가 얼룩덜룩 칠해진 벽돌 벽, 화려한 문양의 빈티지 소파, 누구의 것인지 빛 바랜 사진이 하나씩 끼워진 액자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으려니 쇼케이스 너머의 기오르단 부인(Frau Giordan)이 독일어로 뭔가를 묻는다. 주문을 하려 줄을 섰다고 오해한 것이다. 얼결에 딸기를 얹은 라바토르테(Lavatorte mit Erdbeeren)를 주문한다. 엘라 부인(Frau Ela)이 만든 케이크다. 폴펜지온의 모든 케이크에는 만든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으며, 각자 가장 자신 있는 메뉴를 만들기에 매일 메뉴가 바뀐다. 이름을 쪽 훑어보니 기오르단 부인은 오늘 주문을 받은 일만 맡은 듯하다. 케이크를 통째로 꺼내 조각의 경계를 찾으려는 듯 서버로 옆면을 더듬던 그녀는, 결국 머릿수건 위에 얹어놓았던 안경을 고쳐 쓴다.

- 1 슬루카 페이스트리 4.9유로, 커피 3.1유로부터, sluka.at
- 2 폴펜지온 케이크 3.4유로, 필터커피 2.6유로, vollpension.wien



빈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인 카페 센트랄. 빈의 시내에는 1,200곳이 넘는 유서 깊은 카페가 있다.



터키 태생의 바텐더 에페 안쿤. 알바니아 이민자인 3명의 바 주인과 함께 니들 바이닐 바를 운영하고 있다. 오른쪽 11 아버 차리가 끓는 니들 바이닐 바의 추천 칵테일 위스키 사워.



와이너리에서 아메리칸 스타일 바까지

커피만큼 알려지진 않았지만 와인 역시 빈의 독창적인 음료 문화 중 하나다. 기원전 1세기경 일대 지역을 정복한 로마인이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 빈은 오늘날까지 와인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특하게도 이 지역 와인 생산량의 80퍼센트가 화이트 와인이다. 안주의 종류를 불문하고 대부분은 화이트 와인을 매치한다. 그뤼너 펠트리너(Grüner Veltliner)라는 생소한 품종의 생산량이 가장 높으며, 한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여러 품종의 포도를 섞어 만드는 와인 ‘비너 게이미슈터 자츠(wiener gemischter satz)’도 고유한 문화다.

시내의 식당에서 흔히 접하는 독특한 문화로는 화이트 와인에 물을 섞어 내는 메뉴를 들 수 있겠다. “와인을 좀 더 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야 와인 품질이 좋지 않았으니 그런 식으로 마시는 게 낫기도 했을 테고요. 오늘날까지 그러는 건 일종의 관습인 것 같아요.” 호이리거(Heuriger)인 푸르가슬-후버(Fuhrgassl-Huber)의 마케팅 담당자 율리안 바이저(Julian Weisser)가 테이스팅 코스를 위해 와인잔을 채우며 말한다. 슬쩍 선을 긋는 듯한, ‘잘은 몰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들었다’는 투로.

호이리거는 독일어로 ‘헛것’이라는 뜻. 빈에서는 헛와인을 파는 와이너리를 지칭하기도 한다. 푸르가슬-후버는 빈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와이너리로, 비너 게이미슈터 자츠 와인의 품질로는 가장 유명한 곳이다. “비너 게이미슈터 자츠에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대개 3~5품종의 포도를 섞는데, 어떤 곳은 18가지가 넘는 품종을 섞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맛도 다르고요. 그보다 중요한 기준은 품질이죠.” 여러 품종을 섞는다는 설명에 누군가는 편견을 갖겠지만, 비너 게이미슈터 자츠는 오히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와인이다. 특정 품종의 작황이 나빠도 와인 맛에 끼치는 영향이 비교

적 적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빈 와인 조합은 비너 게이미슈터 자츠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고 관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DAC(Districtus Austriae Controllatus)’ 마크는 매해 품질 검사를 통과한 와인에만 붙일 수 있는 표식이다. 푸르가슬-후버의 2018년산 게이미슈터 자츠에도 물론 이 마크가 붙어 있다. 바이저가 따른 와인을 살짝 맛본다. 샤르도네가 주축이 되어 기분 좋은 산미와 꽃향기를 내는데 목으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후추 같은 독특한 향이 남는다. 누구도 이런 와인에 물을 섞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다음 시음을 위해 잔을 비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은 술을 한입에 들이킨다.

빈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렇듯 전통을 보존하고 전통적 삶의 방식을 따르는 도시임에도 늘 ‘열려 있다’는 것이다. 거리에 소시지 노점상만큼이나 많은 케밥 가게가 있는 건 전후 도시 재건에 동원된 인부가 대부분 터키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명실상부 클래식 의 주중국이지만 동시에 유럽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재즈 공연장과 테크노 클럽을 가진 도시이기도 하다. “빈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대국의 수도였죠. 언제나 외국인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수용적 태도가 배어 있어요.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도 ‘빈스러운’ 뭔가를 추구하기보다는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죠.” 빈에 도착한 첫 날, 비엔나 관광청 홍보 담당자인 베레나 하블레(Verena Hable)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말이다.

취재 마지막 날 밤 그 말이 불쑥 다시 떠오른 건, 바 옆자리의 취객이 ‘빈 사람은 거만하다’는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호응이 없자 그는 바 주인에게 물어보라고 종용하기 시작한다. 자신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안 듣는 체하고 있던 니들 바이닐 바(Needle Vinyl Bar)의 오너 아버 차리(Arbër Qarri)가 입을 뻐죽 내리며 답한다. “글쎄요. 그런 좀 달라요. 어쩌면 ‘오스트리아 사람이 거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빈 사람은 달라요. 늘 놀라움 만큼 개방적이잖아요.” 취객이 수긍할 수 없다는 듯 독일어로 반론하자

아버도 독일어로 논쟁을 잇는다. 상호에서 드러나듯 이곳은 턴테이블로 음악을 트는 주점이다. 아버 차리를 비롯한 3명의 알바니아 이민자가 주인으로, 2,000장 내외의 바이닐을 구비하고 있다. 음악은 시대와 장르를 불문한다. 빅밴드 시절 재즈곡부터 조 코커(Joe Cocker), 건즈 앤 로지스(Guns N' Roses)까지. 맞은편에 앉은 단골과 독일어로 대화하던 차리가 대뜸 영어로 친근한 욕설을 내뱉는다. 밴드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시끄럽죠? 그래도 오늘은 일요일이라 조용한 편이에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클럽이 되어버리거든요. 관광객은 거의 없고 대부분 빈 사람들이죠.” 터키 이민자라는 바텐더 에페 안쿤(Efe Ankun)이 서비스로 만든 에스프레소 마티니 샷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2시간 머무는 동안 받은 공짜 샷은 두 잔. 한 번은 바에서 대접한 것이었고 한번은 칼스라는 이름의 손님이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술값을 올려놓고 일어나려다, 빈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혹 주변에 추천할 만한 술집이 있는지 묻는다. 차리는 몇 분을 고민하다 아메리칸 스타일 바 한 곳의 이름을 내놓는다. “설마 아메리칸 스타일 바를 추천할 줄은 몰랐다”라며 웃자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다. ‘빈 사람은 거만하다’는 말을 들었던 때의 그 표정으로. 좋은 곳인데, 어떻게 분류되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듯이 말이다. LP

1 푸르가슬-후버 와이너리 투어 인당 19유로, fuhrgassl-huber.at

2 니들 바이닐 바 칵테일 10유로부터, needlevinylbar.com

오성윤은 <롤리플래닛 매거진 코리아>의 에디터다. 한국에서부터 달고 간 인후염 때문에 취재 내내 기침에 시달렸으나 귀국하는 날 아침에 씻은 듯이 나아졌다. 빈의 깨끗한 공기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셔댄 화이트 와인 덕분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3 취재 협조 비엔나관광청 wien.info/en

MAKE IT HAPPEN

Wien

ESSENTIALS

가는 방법

인천국제공항에서 빈국제공항까지 대한항공이 주 6회 직항편을 운행한다(136만 원부터, kr.koreanair.com). 에어프랑스(87만 원부터, airfrance.co.kr)와 KLM(94만 원부터, klm.co.kr) 등이 1회 경유편을 운항한다.

돌아다니기

빈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유럽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만큼 잘 구축되어 있다는 뜻. 비엔나 시티 카드를 구매하면 일정 기간 트램, 버스, 지하철, 교외철도 등을 아우르는 비너 리니엔(Wiener Linien)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관광지에서 최대 50퍼센트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심과 공항 간 이동 수단을 포함하는 옵션도 있다. 24시간, 48시간, 72시간권 각각 17, 25, 29유로. 알베르티나 광장, 비엔나 중앙역, 비엔나 국제공항 및 시내 호텔과 주요 관광지의 여행 정보 센터, 티켓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구매해 프린트하거나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율

1유로(EUR)는 약 1,330원이다 (2019년 6월 기준).

추가 정보

론리플래닛 영문판 시티 가이드 <Vienna City Guide> (할인가 15.39달러, shop.lonelyplanet.com)를 e북으로 살펴보자. 비엔나관광청 홈페이지(wien.info/en)에서도 관광, 공연, 쇼핑, 라이프스타일 등 폭넓은 분야의 정보를 만날 수 있다. 여행 중에는 알베르티나 광장(Albertinaplatz)의 빈 여행정보센터를 이용하자. 숙소 예약, 문화 행사 스케줄 등 폭넓고 세세한 정보를 제공해 매해 45만 명이 달하는 이용객을 기록한다.



찾아보기

- 1 케른트너 거리
- 2 합스부르크 왕궁
- 3 빈 시민정원
- 4 쿤스트 하우스 빈
- 5 프라터
- 6 알트 도나우
- 7 성 안나 성당
- 8 W&K 필레스
- 9 오페라하우스
- 10 슬루카
- 11 폴펜지온
- 12 푸르가슬-후버
- 13 니들 바이널 바
- 14 카페 코르프
- 15 탄츠카페 진자이츠
- 16 아말리엔바트

잠잘 곳

- 1 다스 트리에스트

역사와 현대를 아우르는 빈의 또 다른 장소들



HOTEL > 다스 트리에스트

빈 최초의 디자인 호텔. 건물을 지은 것은 무려 300여 년 전으로, 빈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Trieste) 사이를 이동하는 마차의 정거장으로 쓰였다. 1995년에 호텔로 재단장했으며, 작년 말 레너베이션까지 마쳐 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현대적이고 쾌적하다. 120개의 객실에 더해 비스트로, 바, 와인 숍, 이벤트 룸, 올리브나무가 우거진 안뜰에 이르기까지 수준급 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20만원부터, dastriest.at

CAFE > 카페 코르프

1904년에 문을 연 카페 겸 레스토랑.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그득한데, 동시에 모던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도 간직하고 있다. 빈 사교계를 주름잡은 배우



겸 행위예술가 주잔네 비들(Susanne Widl)이 현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유명 예술가들과 협업해 공간을 꾸민 반면 음식의 맛은 철저히 전통을 추구한다. 커피 3.3유로부터, cafekorb.at

BAR > 탄츠카페 진자이츠



유곽을 개조해 만든 작은 주점이다. 붉은 색상과 벨벳 소재가 주축을 이룬 인테리어를 계승하며 DJ 부스를 만들어 엄선한 음악을 듣다. '탄츠카페(Tanzcafe, 춤을 출 수 있는 카페)'라는 명칭처럼 신나게 춤을 추는 사람과 혼자 커피를 홀짝이는 사람이 어우러지며, 방문객의 연령대도 꽤 폭넓다. 칵테일 6.5유로부터, tanzcafe-jenseits.com

POOL > 아말리엔바트

1910년대 후반, 빈은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유일하게 사회민주당을 다수당으로 선출하며 이른바 '붉은 빈(Rotes Wien)' 시대를 맞이한다. 이후 16년간 사회주의 정권이 시행한 주거 및 공공시설 정책은 도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도시 곳곳에 위치한 공공 수영장도 그중 하나. 특히 아말리엔바트는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들러볼 만하다. 화려한 듯 말쑥한 특유의 아르데코풍 인테리어 덕분에 오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영장'으로 회자된다. 수영 4.4유로, wien.gv.at

